

기고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응급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 교통사고, 심정지, 호흡곤란, 심각한 출혈 등 긴박한 순간에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응급처치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현장 응급처치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여명이 심정지로 사망한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거리 등 현장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의 응급처치 시행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심폐소생술 지침서 및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2-3배에 달하며 약45%까지 생존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셈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 번째 응급 처치자일 수 있다.

가까운 가족, 동료, 이웃이 갑작스런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119구급대보다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다. 이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응급처치 능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응급처치 교육확대와 함께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등을 숙지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응급상황이 119구급대와 의료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은 바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에 달려있다. 일반인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냐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족, 내이웃을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응급처치라는 손을 내밀고 모두가 현장의 응급 처치자가 되는 날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극성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위 류경진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인 맹자는 <고자장(告子章)> 편에 신념에 관한 명언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5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는데, 1)그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苦其心), 2)육체를 고달프게 하고(勞其筋骨), 3)굶주림의 고통을 주고(餓其體膚), 4)처지를 불우하게 하고(空乏其身), 5)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고(亂其所爲),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을 길러주며, 일찍이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교했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선물인가?

산드리아 도시로 가서 법학대학을 마치고 변호사 합격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종차별 투쟁, 디클레르크 정권의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찰의 추적과 소련의 CIA의 정보제공으로 체포되어 27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였다. 결국 국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남아공 정부에 의해 석방되었다. 이 일로 남아공의 인권과 차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넬슨 만델라와 친분이 두터운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인 김대중의 펄박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그는 6.25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처형 직전에 탈옥하여 살아났고, 71년 선거 당시 자동차 사고를 빚자한 살해 음모에서 살아났다. 73년 납치 당시 대한해협 바다 한가운데서 수중 고혼(孤魂)이 될 뻔한 순간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으며, 12.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등 험난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가보지도 않는 인생길을 미리 운명이라는 말로 단정 지어 놓고서 ‘어차피 난 안 된다!’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꿈도 희망도 없다. 그러나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전에 하늘에서는 시련을 먼저 주시는 거라”라고 믿고,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추진과 소련의 CIA의 정보제공으로 체포되어 27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였다. 결국 국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남아공 정부에 의해 석방되었다. 이 일로 남아공의 인권과 차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재명은 경북 안동 산골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성남으로 이사하여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3세부터 엄마와 손잡고 일터로 가야 했고, 공장에서 이유 없이 상습폭행으로 맞아가며 일해야 했다. 브라보콘 1개 값에 불과한 일당을 3개월 치 때어먹고 하룻밤 서럽게 울기도 했다. 노동하면 서 산재 사고로 후각을 상실하였고, 팔을 다쳐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인인 되어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

그러나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답십리 학원을 다녔다. 아침 7시 반에 회사 가서 일하고, 오후 5시 반에 퇴근해서 버스 타고 성남에서 답십리 학원 가서 강의 듣고, 막차 타고 집으

로 돌아와 독서실 가서 새벽 4시까지 공부했다. 통행금지 풀리면 집에 가서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공장 일터로 가서 일하는 반복된 생활을 하였다.

그해 수능시험 결과 전국 석차가 3,000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서울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 그러나 등록 4년 전액 장학금 받는 중앙대 법대에 합격하여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그 후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다 성남시장, 도지사를 거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좌에 이르는 동안 숭한 고통과 박해를 받았다. 전과 4범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수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있어 왔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 20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 아들 도박 등으로 온갖 수모를 당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이재명 님에게 정말 혹독하고 비정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재명은 청렴을 백으로 버티고 오늘 권좌에까지 왔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맹자의 5가지 역경을 극복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부터 큰 정치로 승화시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잘 섬길 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음력 5월 23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text for daily fortune.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